

# ‘정읍의 오향’ 인문학 강좌 개설한다

교육부 인문 도시지원사업 선정  
국비 4억 2000만원 지원 받아  
3년간 매년 60회 시민·학생 특강

정읍시의 '정향(井香)누리' 정책의 핵심인 '정읍의 오향(五香)'이 국비 지원을 통해 인문학 강의로 대중들에게 전파된다. 정읍시는 전북대와 공동으로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1년도 인문 도시지원사업'에 응모한 결과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돼 국비 4

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인문 도시지원사업'은 지역사회와 대학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인문 자산을 발굴하고 다양한 인문 교양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가 공모사업에 참여한 주제는 '오향(五香)이 살아 숨 쉬는 인문 도시 정읍'으로 전북대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앞으로 3년간 대중화를 목표로 인문 자산을 발굴·전파하게 된다. '정읍의 오향'은 인향(人香), 화향(花香), 성향(馨香), 주향(酒香), 미향(味香)으로 우수 콘텐츠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정읍만의 특색있는 향

기를 말한다. 오는 9월부터 정읍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가 개설돼 매년 60회의 특강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향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시민참여 인문학제와 강연, 전시, 북콘서트를 비롯해 답사와 체험활동 등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정읍 우수자원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읍의 다양한 인문학 자원이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 군산시, 노동부 일자리정책 평가 우수상

군산의 일자리정책이 전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군산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일자리 정책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전국지자체 일자리 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 지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는 제도다. 군산시는 ▲산업체제 개선과 연계한 일자리사업 ▲상권회복을 통한 골목상권 일자리 유지 ▲청년 지역정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삼고 전가차,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에 대비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노사민정의 협력으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지난 2월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이라는 성과를 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맞춰 취약계층 시민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에 힘쓴 결과, 지난해 2만4252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당초 목표 대비 125.7%를 달성해 시민생계 안정을 도모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18년 고용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자리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며 신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했다. 올해부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며, 양질의 일자리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kwangju.co.kr

# “우린 ‘500원 통학택시’로 등하교 해요”

운행버스 없는 시골 중·고생  
순창군 87명 선정 서비스 제공



순창군 면지역 학생들이 읍내 중·고등학교 통학을 위해 이용료 500원만 내는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우린 500원 택시로 통학해요.” 순창군이 면지역에 거주하며 읍내 중·고등학교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용료 500원의 통학택시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군은 면지역 외곽에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500원 통학택시'를 운영 중이다. 순창교육지원청의 협조로 87명의 대상 학생이 선정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외딴 지역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해 순창읍내로 이사를 걱정해야 하는 부모들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군은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노선버스 운행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까지 거리가 2km 이상이고, 등하교 시간에 운행버스가 없거나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인 중·고등학생을 서비스 이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학택시 최장거리 이용 학생의 통학거리는 24km에 이르기까지다. 하루 2번 등하교를 할 때마다 학생들은 500원

만 부담하면 편하게 택시를 탈 수 있다. 군은 하반기에도 통학택시를 이용하려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면 지역에서 등하교를 위

해 먼 거리 통학을 감수하는 학생들에게 통학택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역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원하는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j@kwangju.co.kr

# 익산시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 총력전

익산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 신종 감염병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진운 익산시 보건소장은 최근 질병관리청과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방문해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특히 시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생물안전차폐시설(ABSL-3)을 보유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시설 활용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기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활용해 국립감염

병연구소 분원을 설립할 시 국가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신속하게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전문연구소(분원) 설치 가능하게 된다.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 주변 넓은 부지는 추가로 감염병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K-바이오 산업 유치 가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은 K-방역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미래 신종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감염병 연구 관련 신산업 창출 등 국가 감염병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영명 기자 yjy@kwangju.co.kr

# 남원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까지 확대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남원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한다. 남원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청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돼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들에

게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상을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7년 이내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만 19~39세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전셋가 폭등으로 불안정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자금 대출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은 앞선 대상 기준 외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이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대출잔액의 최대 3%, 최대 연 200만원의 이자가 지원이 이뤄진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국민·매입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주거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경제적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결혼해서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립도서관 우수 독서프로그램 공모 선정

전국책읽는도시협 1000만원 지원

고창군립도서관이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이 주최한 2021년 우수 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이 주최한 독서생태계 활성화와 책읽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18년 창립대회 현재 27개 지자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15개 지자체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올해 공모 사업에서 고창군은 '고창 한 책과 쉬어가기'라는 주제로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올해 고창 한 책으로 손원평 작가의 '아문

드'와 한정영 작가의 '귀명창과 사라진 소리꾼'을 선정해 홍보하고, 이어읽기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 한 책과 쉬어가기'는 군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복지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무장 희망생 학교 등 지역 내 다양한 공간에서 운영돼 책읽는 도시 고창의 이미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태종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올해 고창 한 책은 부담없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도서로 선정됐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